

전주·완주시내버스 노선개편 정비

승강장·노선도 등 인프라 구축

전주·완주시내버스 노선개편이 임박한 가운데 전주시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을 위해 승강장과 노선도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정비에 나섰다.

전주시는 60년만에 처음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중화산동 안행로에 지주형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오는 15일까지 노선개편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승강장에 대한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설되는 곳은 안행로 구간 양 방향 정류장 등 모두 22곳이며, 노선조정 및 변경에 따라 3곳 정류장이 이설되고 15곳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7일까지 지·간선제 시범도입구간인 이서방면 시내버스 이용자들을 위해 주요환승거점인 전주대학교 앞에 개방형·밀폐형 환승승강장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노선개편 시행 열흘 전인 오는 10일부터 열흘간 5개 팀 총 15명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노선도 정비 점검반을 운영, 유계승강장 698개소를 대상으로 노선개편에 따른 변경된 신규노선도로 교체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주형표지판 587개소의 경우도 교체된다.

시는 시민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변경된 노선개편 내용을 확인할 수 있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 비전 공유 및 추진방향 등을 위한 김승수 전주시장 특강이 6일 전주시청

도록 보다 편리한 교통정보 홈페이지를 개발해 오는 8일부터 선보일 계획이다. 새로운 교통정보 홈페이지는 이용자들이 변경된 노선개편안에 따라 보다 편리하게 노선검색을 할 수 있도록 돼있어 노선개편 조기정착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노선개편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각급학교의 개학

을 맞아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9일간 전주시 29개 고등학교를 찾아가는 방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또 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노선개편 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주요정류장과 병원, 시장, 우체국, 은행, 학원 등 다중집합시설을 찾아가는 현장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노선개편 시행당일인 오는 20일에는 시 분청 및 완산·덕진구경, 각 동 주민센터 직원 440명이 하루 이용인원이 70명 이상인 주요 220개소 정류장

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선개편 내용 및 정류장 경우노선 등에 대한 안내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과 관련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노선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여자가장 성매매 선불금 받은 조폭 검거

본인을 어린 여자인척 속이며 성매매 선불금을 받은 조폭력배 두 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6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가출 청소년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000만원 이상을 가로챈 조폭력배 A씨(19)와 B씨(19)를 형사입건 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다수의 남성에게 성매매 선불금, 택시비 등을 요구해 1,0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거라고 보고 추가조사를 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체납 수도요금 강력 징수 나서

전주시가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납 수도요금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김태수)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체납 단수반 운영을 통해 3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수도요금 징수절차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3개월 10명으로 구성된 체납단수반은 각 권역별·지역별로 순회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단수처분을 지양하고 자진납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요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전화폭력 및 단수제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일반 고질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단수처분을 확대하는 등

'요금을 체납하면 단수된다'는 의식을 심어줄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고질상습 고액체납자 중 주간에 만나기 어려운 폐문 및 야간업소, 대면접촉이 필요한 수용가를 대상으로는 '올빼미야간체납단수반'을 운영하는 등 끝까지 찾아간다는 각오로 징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는 원활한 징수활동을 위해 지난달 기간제 체납 단수보조요원 6명을 선발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상하수도요금을 상습 체납한 480세대(5190건, 2억2100만원)에 대한 단수조치를 취하고, 1만 5350세대(7만6975건 58억5500만원)를 방문해 계고 및 납부 독려 징수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선 결과 97.5%의 높은 징수율을 달성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모집

목돈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전주시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I, II) 신규가입 대상자를 주소지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I, II) 사업은 일하며 저축하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자선형성을 통해 자활을 돕게 된다.

사업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희망키움통장(I)과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II)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희망키움통장(I)은 현재 일하고 있는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로 3년 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며, 3년 이내 탈수급 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II)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3년 동안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씩 36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금액은 주택구입·임대,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기술교육,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하거나 탈수급을 하지 못한 희망키움통장(I)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시는 희망키움통장(I) 사업 가입자를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모집기간은 6일부터 10일까지다. 또, 희망키움통장(II) 사업은 2월과 5월, 8월, 10월 등 연간 4차례 모집하며, 2월 모집기간은 6일부터 17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사회경제지원과(063-281-2032) 또는 주소지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의류매장서 다른여성 가방 훔친 40대 형사입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6일 의류매장에서 다른 손님이 옷을 갈아입으려 간 틈을 노려 명품가방을 훔친 김모씨(49,여)를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1시40분께 중앙동 소재의 한 의류매장에서 다른 손님의 명품가방과 안에 들어있던 현금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가방이 좋아 보여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만취해 군청공무원에 침범고 역살집은 60대 농민 집유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운현 판사는 6일 만취상태로 군청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역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2시 40분께 임실군청 농업정책과 사무실에서 본인소유의 농장이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항의하던 중 담당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역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쁜 범행을 인정하고 합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한복 입혀주던 여직원 성추행한 40대 벌금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운현 판사는 6일 한복대여점 안에서 옷을 입혀주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40,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한씨는 2016년 5월 29일 오후 6시 40분께 전주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한복대여점에서 자신에게 한복을 입혀주던 여직원 A씨(21)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추행의 정도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벼운 점, 합리적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구독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